

“소명 기회 줘야” vs “자격도 없는 인물”

여야 ‘문창극 청문회’ 격돌 예고... 내일 청문요청서 제출 새정치 특위위원장 박지원 내정... 문 “위안부 발언 사과”

정부는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가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청문회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명할 기회를 갖자는 의도와 함께 문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 청렴성 등 다른 측면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제까지 드러난 문 후보자의 발언만 봐도 이미 총리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판단, 낙마 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 검증보다 국민 검증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지금으로서 국민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쉽게 청문회를 열고 입명에 동의해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며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야

당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이용해 문 후보자의 반역사성·반헌법성을 집중 공격하고 나아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감싸기’하는 여당에 공세를 퍼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은 당내 중진 및 ‘대여 저격수’ 등을 총동원해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장으로는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을 사실상 내정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 힘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감할 수 있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일본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교회 내 발언과 관련, “일반 역사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역사의 종교적 인식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민지배와 분단이라는 시련을 통해 우리 민족이 더 강해졌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해방을 맞았으며 공산주의를 극복했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칼럼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언론인 시절 언론인으로서 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위안부 입장 밝히는 문창극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 앞에서 위안부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측근·정실인사 철저 배제 시청내에 청년 부서 신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밝혀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정실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시청 내에 청년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당선자는 15일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한 검증 거쳐 공직자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혔다.

윤 당선자는 특히 “역량이 안 되는데 친소관계에 따른 정실 인사와 승진 관련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 당선자가 민선시대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지적돼 온 측근·정실 인사 등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광주시의 역대 최대 승진 인사인 7월 인사(3급 4명, 4급 15명)를 앞두고 새 인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 당선자는 지난 13일 전남대에서 광주지역 대학생 30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시청 내에 청년 관련 부서를 만들어 청년·대학생들이 모여 연대하고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제공은 물론 청년 지원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질의 응답식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윤 당선자는 “4년 후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밸리’가 돼 있을 것”이라며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윤 당선자는 또 “임기 동안 안전한 광주,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 한 명도 버려지지 않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토목·건축 사업 중심에서 공공성 회복으로 중심 이동을 하고, 대학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국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자는 16일에는 시민과의 만남 행보를 잠시 접고 ‘발등의 불’인 201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 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윤 당선자는 이날 광주시의 2015년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장·차관 및 실무진과 국비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현C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광주시장 인수위

시민과 소통 홈페이지 개통

“(윤)장현C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민선 6기 광주시장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www.gwangju4u.kr)를 개통했다. 준비위원회는 홈페이지 내에 ‘광주를 만들어요’, ‘이야기합시다’ 코너 등을 개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이야기합시다’ 코너 내에 있는 ‘장현C에게 바란다’에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요구부터 지하철 2호선 노선 문제, U대회 선수촌 민원,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비롯한 광주공민 포럼 주제에서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각양각색의 희망사항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인성 준비위원장은 “민선 6기 시청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에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됐다”면서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또 혁신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혁신공약추진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울시로 보냈다. 토목행정을 배제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식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혁신공약추진 태스크포스는 특히 시민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 중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공약 중 시민 밀착형 공약(주택법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민선 6기 동안 광주시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시민 밀착형 공동사업 추진 MOU 체결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오늘부터 7일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부터 7일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박 대통령은 이들 3국의 국민방문을 통해 정부의 대외협력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수리크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

발전소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수도 타슈켄트 방문기간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 대표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또 18일에는 실�크로드의 심장국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250여개가 진출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하고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등 추진사업을 점검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주말·휴일에도 사파리 아일랜드 등 현장 점검

전남지사 인수위

‘민선 6기 전남지사직무 인수위원회’(위원장 허상만) 분과위원들이 짧은 인수 기간을 감안해 주말과 휴일에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인수위는 15일 “문화·관광분과위 류중구, 김병원, 전종구 위원 등이 이날 국고보조사업인 영광군 배수읍 ‘국제마을훈련원’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또 허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관광분과위 위원들은 앞서 14일에도 영암군 영산호 관광지와 신안군 도초면 ‘사파리아일랜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16일에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아 박람회시설 사후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해양·수산분과위 위원들은 19일 고흥 한성푸드와 보성 웅치 휴양림, 완도 해양수산과학원 등을 둘러 현장사항 등을 파악한다.

경제·과학·투자유치분과위, 보건·복지·교육분과위, 기획·행정분과위 등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관련해 현장조사와 분과위별 회의 등 활동을 펼친다.

이들 각 분과위원들은 24일까지 위원장에게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대안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필드를 인상시키는 쾌적한 연습장!!

- 퍼터, 어프러치 잔디 연습장완비
- 60타석으로 휴게실, 샤워장 완비
- 시간 제한 없이 지속적인 연습 가능

목포시 연산동 614-194
목포골프클럽·호남미니골프장
T.(061)273-0087 F.(061)279-5517